

□ 대창면

*강회리

江回와 馬音으로 이루어졌으며 강회는 속칭 공덕이라고도 한다. 약 100여년전 呂氏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을 했다 하여 공덕이라 칭하게 되었다. 馬音은 옛날 이 마을에 사는 이씨가 오얏나무밑에 말을 많이 묶어 두었더니 나무가 흔들리고 말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며, 신공덕은 근간에 개척된 마을로 강회입구의 마을이다.

*구지리

上求, 下求, 教洞, 求教의 4개 자연부락으로 되었으며 개척시기는 알 수 없다. 上求를 웃뜸이라 하며 지형이 꽃 모양으로 피었다하여 求芝라 하며, 약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下求是 상구 아래이니 아랫뜸이라고 하며 약 40여 가구가 살고 있다. 新基는 북쪽에 새로 생겼으며 논둑에 처녀 바위가 있다. 長谷은 긴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약 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대재리

밴마아, 배마실, 대재동 : 김해 허씨, 밀양 박씨가 주성이며 약50여 가구가 살고 있고 동쪽 대재 못에서 약 200m 쯤에는 유후재가 있다.

*대창리

예부터 내려오는 사리 1부와 옛 대창리 일부를 합하여 1914년 시군 통폐합시 새로 동을 조정할 때에 대창이라 했다. 크게 번창한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며 1, 2리로 나누어져 있고 소재지이다. 細馬는 처음엔 몇집만이 살았으나, 약 100여년전부터 마을이 늘어 경지정리로 인하여 매우 깨끗하게 보인다. 新堂은 옛날에 동제를 지내는 신당이 있었다고 전한다. 포척은 원이름이 개자리였으나 한자로 표시하다보니 浦尺이 되었다.

*병암리

병풍바위 앞 남쪽에 동서로 길게 뻗은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생겼으며, 松邱里는 골짜기가 가늘고 긴 곳에 마을이 있으니 細里라 했다 한다. 남쪽 냇가에는 조씨의 재실이 있는데 약 300년전에 건립한 것이라 하며, 七田은 옷나무가 많음으로 漆田이라 부르다가 와전되어 칠전으로 변했으며, 가는골은 못안을 말하며 옛날에는 소먹이는 곳이었다 하고, 곱두리는 옛날에 읍소재지였다 한다. 당솔은 큰 소나무가 무성했으며 아랫마을은 금호읍과 경계해 있다.

*사리리

사리는 마을 전체를 가리키며 싸리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 한다. 싸리를 沙리로 변경했다. 한 못안을 용덕리라고도 한다. 약 100여년전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한다. 저수지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동네 앞에 다리를 용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다고 한다. 현재 60가구가 살고 있다.

*신광리

가장 큰 마을이 개상골이다. 앞에는 들이 있고 위에는 못이 있다. 뒷산의 모습이 介字모양이며

앞산이 字모양이라서 介字라 했다 하며, 새일, 썰, 효일은 효일령 밑에 있는 마을로 효일령에 해 뜨면 가장 일찍 해가 비친다고 한다. 안새일이 있고 아랫각단이 있으며 두각단이 있다. 점마, 지 일내를 경계로 동은 지일, 서는 옹기 굽던 점 마을이다. 오복실은 옛날에는 여러 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텅빈곳이다. 입구는 좁으나 안은 넓게 개전되어 대창면 남부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이다.

*어방리

어배이, 어방리, 신원 : 方자는 온양 方氏가 많이 산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광복후 신원으로 고쳐 줄 것을 건의했으나 기각되었다 한다. 새터 새각단 : 온양방씨의 정각이 있으며, 조선 말엽에 생겼다고 한다. 안각단은, 앞에 案山이 있고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건너 각단은 안각단에서 시내를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울을 건너 다녔기에 생긴 이름이라 한다.

*용호리

탐마을, 산잠동, 원촌, 송호, 용교가 합해서 된 마을이다. 山岑은 탐마을이라고도 부르며 옛날에 탐이 있었다고 하며, 파손된 윗부분은 영지사로 옮겼으나 기석은 논 가운데 묻혀 있다. 용호본동은 냇물을 중심으로 옛날에 건너다니는 나무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송호동, 송오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며, 마을 주위에 松나무가 울창했기에 지은 이름이다. 못안은 도화제내에 있는 마을이며, 입구에 지산 조호익선생의 강학소이던 도잠서원이 있다.

*운천리

까치락골, 운잠, 운천은 동방이 합해서 된 마을이며, 평탄하며 까치가 날아가는 듯한 모양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다. 남창은 옛날에 큰 창고가 있었던 곳이며, 지금은 직천, 운천, 용전의 3개 마을 공동 창고가 있다. 우기미, 우금은 앞산 모양이 거문고 형상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며 임하골에서 남쪽으로 500m지점에 있다. 임하골은 동리 입구에 임하 숲이 있다.

*조곡리

토질은 메마르나 풀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며 상조리 밖 넓은 평야지에 있다. 줌실, 上助谷 : 긴 골짜기로 상리와 하리가 있으며, 옛날에 활빈당이 이곳에 와서 旗를 꽂았다는 말이 있다.

*직천리

피내, 직천 : 마을 앞의 내에 피가 많기에 피내라 했다. 일정시 흐르는 내가 비교적 곧게 흐른다고 직천이라 했다. 나곳, 나골 : 정상동에서 분리되어 나온 마을이며 光州 盧氏가 主姓이다. 불방재 : 골짜기에 부처가 있었으며 정상동은 약 30여년전에 노씨 정각이 지어져 있었다. 동명은 정각이 있기 이전부터 일컫던 이름이다. 이사막골은 500년전부터 인삼을 많이 재배했기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은 막이 있었다. 직천과 정상을 합해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옛날일 것으로 추측한다.